



▲ 이희득(왼쪽에서 두 번째)씨 부부와 김재영(맨 오른쪽)씨 부부가 마주보며 웃고 있다.

젓소 키우고,
사료 만들고,
'두 부부가 사는 법'

>>> [취재 _ 이미지]



▲ 두 농가가 운영하는 TMR공장

경 북 경산 용성면에 가면, 형제, 자매 같은 두 부부가 산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똑같이 젓소를 키우고, 또 그 젓소들이 먹는 사료도 함께 만드는 이웃들이다. 송림리에 있는 청암목장의 이희득(48세)씨 부부가 동생인 썸이고, 도덕리에 있는 인영목장의 김재원(53세)씨 부부가 형님 격이다. 두 부부 모두 낙농을 시작한 지가 20여년이 넘는 베테랑들이고, TMR사료를 직접 만들어 온지도 10년이 넘는, 그래서 TMR사료에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희득 씨가 운영하는 청암목장 초입에 있는 TMR사료공장은 자그마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두 이웃이 일하는 조그마한 TMR사료공장이 있다. 여기서 이희득 씨와 김재원 씨는 일주일에 두 번은 만나서 함께 사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는 “소주 한 잔 마실” 시간으로 남겨둔다. 힘든 노동을 한 스스로에게 주는 휴식의 시간이

기도 하고, 두 이웃이 정을 맺어가는 정다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쯤 되다 보니 두 이웃은 서로에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각별하다.

전자공학 전공한 이희득 씨 경종농업 겸업한 김재영 씨

청암목장을 운영하는 이희득 씨는 사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첫 사회생활도 서울에 있는 한 전자회사에서 시작했고, 이후 자영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전

공을 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향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한 친구를 보면서 결심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86년. 소위 소파동이 낫던 시절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임만삭의 젓소 한 마리가 380~400만원에 거래되었지만, 당시엔 겨우 15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위에서도 실컷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낙농을 선택한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체질적으로 ‘월급쟁이’가 맞지 않았던 덕분인지 그는 목장 일에 열심이었고, 지금은 1,300평의 목장에서 모두 130두(착유우 50두)의 젓소를 키우는 ‘오너’가 됐다. 1일 납유량이 1,450kg 정도 되고, 유지방이나 체세포 수도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내실 있는 젓을 짜내면서 말이다.

인영목장을 운영하는 김재영씨는 80두의 젓소를 키운다. 이중 착유우는 30두. 규모만 보자면, 이희득 씨보다 좀 적은데, 그 이유는 과수원과 논농사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나 최고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다.

TMR사료공장 함께 운영 바이오엔그린텍 ‘밀크피드’로 발효 파인애플 넣고, 비타민·미네랄 충분 섞어

이 두 목장의 젖소들은 모두 주인이 만들어 준 맛있는 사료를 나눠 먹는다. 여섯 농가가 힘을 합쳐 만든 TMR사료공장에서 이희득 씨와 김재영 씨가 TMR사료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다. 자가배합이란 게 말은 쉬워도 해 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원료 구매에서부터 배합비를 짜는 것은 물론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농가는 지혜롭게 잘 해결해왔다. 물론 첫 시작은 여섯 농가나 의기투합해서 활기차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두 농가 밖에 남지 않기는 했지만, 떠난 사람들도, 남은 사람들도 좋은 기억과 보람을 공유하고 있기에, 단출하지만 알찬 공장은 지금도 쉼 없이 잘도 돌아가고 있다. 이 공장이 있어서, 사료조달이 전국적으로 힘들었던 IMF 파도도 누구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나 5년 전부터 인연을 맺게 된 (주)바이오엔그린텍의 송시현 대표이사 덕분에 날개를 달았다.

“자가배합이란 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TMR이란 것도 그래요. (주)바이오엔그린텍의 ‘밀크피드’를 알기 전

에는 백주박을 협업 체제로 거의 매일 생산했는데, 이게 변질이 잘되더라구요. 특히 여름엔 아주 고역이죠. 근데 한경대학교에서 만난 송 사장이 권해주는 ‘밀크피드’를 이용하고서는 일주일에 두 번 작업을 해도, 사료가 아주 신선하고, 냄새가 좋아요. 2차 발효가 없어서 농장에 오는 사람들도 다 놀래요. 이게 일주일 된 사료 맞느냐고. 이것 냄새한 번 맡아 보세요. 사람도 먹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이희득 씨가 밀크피드로 발효시킨 사료를 한 움큼 집어 기자에게 내밀었다. 옆에서 섰던 송시현 대표이사도 싫지 않은 기색을 얼굴에 띄우며, 연신 웃는다. 질병도 많이 줄었다.

“수의사 찾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아시겠지만, 수의사를 자주 찾는다는 건 약값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자리를 잡기까진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



▲ ‘밀크피드’로 발효시킨 TMR사료

다. TMR사료를 먹이면서 두어 달 정도는 소들이 너무 많이 먹어 잘못되나 싶었다. 들어간 것이 너무 많으니 안달이 날 정도였다. 또 규모가 작다보니 그 많은 단미사료를 구매하는 것도 힘에 달렸다. 건초는 또 어땠는지, 돌이켜보면 참 쉽지 않은 길이었다. 이제는 원료구매는 한 업체에게 맡기고 있고, 배합비도 축산연구소의 박사님을 통해 짚으며, 조사료 조달도 한층 더 쉬워졌다.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다. 중간엔 같이 하자고 들어온 목장주도 있었다. 하지만 금방 나가버렸다. 소가 적응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료공장 같이 하자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두 달 정도는 자기 목장의 소가 적응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 갑자기 되는 게 있나요?”



▲ 왼쪽부터 (주)바이오엔그린텍 송시현 대표이사, 청암목장 이희득씨, 인영목장 김제영씨

묵묵히 기다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두 목장주들의 충고는 인생에 대한 좋은 말씀으로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이렇게 키워온 공장. 근데 서로 목장 규모가 다른데 노동하는 양은 같다. 사료를 쓰는 양도 다를 텐데 말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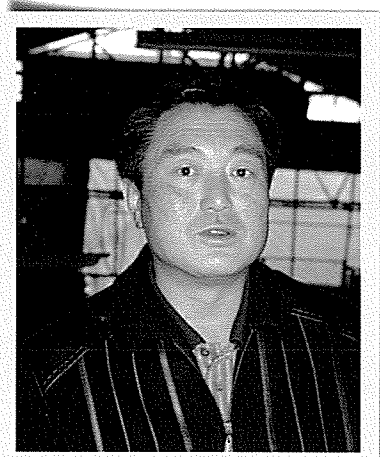
“적립금 제도를 두고 있어요. 1kg 당 30분씩 적립금을 붙이죠. 그렇게 쌓아두면, 1년에 800만원이예요. 이걸로 회식도 하고, 소소한 일들을 하죠. 분란이 날 게 없어요.”

이들 부부의 지혜는 여기서도 묻어난다. 거기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희득 씨가 있어서 공장 기계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일이 별로 없다. 웬만한 것은 다 이희득씨 몫이다. 그러니 이 알찬 공장은 탄탄하게 굴러간다. 안사람끼리도 허물이 없다. 서로의 부업이 자기 집 부업만큼 익숙하고, 서로의 고민도 자

기 고민처럼 안타깝다. 목장을 함께 경영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축산환경의 앞날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눈다. 나날이 힘을 더해가는 유업체에게 서운한 것도,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물결 속에 불투명한 낙농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도 그들은 닮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도 말이다. 아, 세상엔 하나가 아니어서 아름다운 둘이 참 많다. ㉞



(주)바이오엔그린텍은....



▲ 송시현 대표이사

1989년 유기성 부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미생물 발효사료 사업을 모태로 설립된 회사로 2001년 정식 법인체로 전환, 현재 '밀크피드'를 전국 낙우회, 200여 개인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 소재 사료회사다.

2001년 3월 '한국천연자원연구소'를 설립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유기축산의 실현을 위해 항생제 대체 천연물 신소재, 항산화물질, 면역기능향상 및 조절 물질, 생균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밀크피드'는 해발 650M 이상에서 서식하는 순수 국내 토착 저온성 미생물을 활용하여 20여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발효사료로 송시현 대표이사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그 외 (주)바이오엔그린텍이 출시한 제품으로는 대체의 학용 허브와 미생물 발효공학을 결합해 만든 '소마노'와 송아지설사 예방 연구를 통해 태어난 '락토피스', 축산환경개선용 약취제거제 '오슬로' 등이 있다.

송시현 대표이사는 "20여년의 노하우와 현재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유기축산 구현에 앞장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나아가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를 생산해 실버산업과 접목시키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